즉시 배포용: 2024년 8월 15일 **KATHY HOCHUL 주지사**

HOCHUL 주지사, 저소득 유틸리티 고객을 위한 에너지 경제성 보장 시범 프로그램 발표

주택을 완전히 전기화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시범 프로그램

*가구가 연간 소득의 **6%** 이상을 전기 요금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*

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(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, PSC)가 에너지 경제성 보장(Energy Affordability Guarantee)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PSC의 결정은 EmPower+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및 온수 난방을 완전히 전기화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에너지 경제성 시범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시행 계획을 제공합니다. 이 시범 프로그램은 약 1,000명의 EmPower+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맞춤형 요금 지원을 제공하여 연간 가구 소득의 6% 이상을 전기 요금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
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경제성이 최우선 과제이며, 우리는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에너지 경제성 보장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주 전역의 가장 취약한 가정을 위한 청정 에너지 채택의 장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."

에너지 경제성 보장 시범 프로그램은 Hochul 주지사가 2023년 시정연설에서 처음 설명한 내용입니다. 다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2025년 회계연도 주 예산에서 5,0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제공됩니다.

보증을 받으려면 고객의 주택이 연간 가구 소득이 주 중위 소득의 60% 이하로 설정된 저소득 프로그램 소득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고객이 EmPower+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어야 합니다.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(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)에서 관리하는 EmPower+ 프로그램은 중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무료 및 보조금을 제공합니다.

이 보증은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에너지 경제성 및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다른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합니다. 첫째, PSC는 2016년에 저소득층 고객이 연간 가계 소득의 6% 이상을 에너지 요금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한 오랜 에너지 경제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주요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에서 관리하는 유틸리티 에너지 경제성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고객에게 매월 단계별 할인을 통해 요금 납부 지원을 제공합니다. 또한, 주 전역의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자격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약 1억 7,000만 달러의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.

PSC 의장인 Rory M. Christ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뉴욕 주민들에게 가정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한 Hochul 주지사의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. 이러한 노력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 재고의 탈탄소화라는 똑같이 중요한 목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, 저소득층을 위한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"

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.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오늘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 승인한 에너지 경제성 보장 시범 프로그램은 모든 주민이 청정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. 이 프로그램은 EmPower+에 추가된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,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가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 공간을 즐기면서 에너지 요금을 낮추고 일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."

뉴욕주 Walter T. Mosley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기후 위기와 경제성은 우리 주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이며, Hochul 주지사의 혁신적인 에너지 경제성 보장 시범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주택을 완전히 전기화하도록 장려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더 친환경적인 뉴욕 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."

임시 및 장애인 지원국(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)의 Barbara C. Guin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에너지 경제성 보장 시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이 월 공공요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에 전기를 완전히 공급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뉴욕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, Hochul 주지사는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 사회가 이러한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"

공공 유틸리티 법률 프로젝트(Public Utility Law Project, PULP)의 전무이사 겸 변호사인 Laurie Wheelo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PULP는 설립 초기부터 EmPower+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습니다.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에너지 경제성 보장이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여 저소득층 가구에 꼭 필요한 도움을

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 PULP는 주 전역의 취약한 가정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후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이러한 노력을 주도해 주신 주지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 앞으로도 주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필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더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"

AARP 뉴욕주 디렉터인 Beth Fink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AARP는 계속 증가하는 공공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를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Hochul 주지사와 공공서비스위원회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. EmPower+와 같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려는 중산층 가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정책의 확고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."

5월,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가 미국 최초로 인플레이션 감소법(Inflation Reduction Act, IRA) 가정용 전기화 및 가전제품 리베이트(Home Electrification and Appliance Rebates, HEAR)의 첫 번째 단계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초기 3,960만 달러의 공식 보조금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에너지 효율과 전기화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택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가정에서 화석 연료를 태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욕의 EmPower+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. 6월 14일, NYSERDA는 중산층 거주자 및 대규모 중저소득 다세대 건물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IRA 환급 혜택과 가전제품에 대한 소매점 판매 시점(point-of-sale, POS) 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부에 HEAR 및 HER 인센티브의 전체 범위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

PSC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고객 및 주택 프로필에서 히트펌프 작동에 따른 전기 소비량 및 비용 증가와 같은 저소득 가구의 전기화에 관한 중요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러한 인사이트는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위해 에너지 경제성과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주택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

뉴욕주의 기후 어젠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, 모든 분야에 걸쳐 녹색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며,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40%를 목표로 최소 35%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향하도록 하는 질서 있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뉴욕은 New York Cap-and-Invest program (NYCI)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여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, 2050년까지 85 퍼센트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.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생성 70% 등 2040년까지 무배출 전기 부문의 필수 목표에 도달하고,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전환의 초석은 뉴욕주 전역의 61개 대규모 재생 및 송전 프로젝트에 280억 달러 이상 투자, 건물 배기 가스 감축을 위한 68억 달러 이상, 태양광 확장 33억 달러, 청정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약 30억 달러, NY Green Bank의 20억 달러 이상의 약정 등 전례 없는 청정

에너지 투자입니다. 이와 더불어 기타 투자를 통해 2022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170,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,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3,000 넘게 성장했습니다.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뉴욕은 또한 2035년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을 무배출 차량으로 제한하는 등 무배출 차량 규제를 도입했습니다. 등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(Climate Smart Communities) 400곳, 인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130곳 이상,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(Clean Energy Communities) 500곳 이상, 뉴욕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대기 질 관리 이니셔티브 참여 지역사회 10곳 등 대기 오염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뉴욕주 기후 행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: ny.gov/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세요

구독 취소